

【 해외금융 뉴스: 복미 】

미 하원, 연방보험정보기구 설립안 통과

-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는 연방보험정보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Federal Insurance Office Act of 2009)을 통과시킴.
 - 연방보험정보기구(Federal Insurance Office)는 재무부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보험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보부족과 국제관계에 있어서 주 보험당국의 대표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됨.
 - 동 기구는 보험산업에 대한 어떠한 규제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 보험법을 초월할 수 없고, 다만 보험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권한만을 가지게 됨.

- 연방보험정보기구가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현재 주(州)단위로 감독을 받고 있는 보험산업에 이중 규제가 가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는 보험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 연방보험정보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이 지난 봄 하원에 제출된 이후 연방보험정보기구가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명확히 제한함.
 - 미국 상호보험협회(NAMIC)는 보험감독 권한의 명백한 제한으로 연방보험정보기구설립이 기존 주 단위의 보험감독체계를 존중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험산업에 대한 연방 단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미국보험협회(AIA) 또한 이번 법안 통과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자평하며 주 단위 보험감독제도가 현재와 같은 글로벌경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방기구가 그 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중앙정부가 보험산업을 이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함.
 - 독립설계사 협회(Big"l")는 이번 법안이 의무적으로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수정이 없었다면 수많은 설계사, 대리점들도 데이터 제공을 요구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함.

(Insurance Journal, 12/2)